

철탑 90개·콘크리트 범벅...환경파괴 불보듯

전남도, 무등산 전망대·케이블카 추진 논란

급조된 계획에 광주·전남 갈등 우려

전남도의 무등산 전망대·케이블카 설치 방침에 대해 광주시와 환경단체 등은 국립공원인 무등산의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글훼손·예산확보는 어떻게=
7일 한국작도협회에 따르면 전남도의
계측대로 증식사 입구·장봉체(4
km), 화순 수만리·장봉체(3km)에 이
르는 2개 구간에 케이בל가를 설치할
경우, 무등산 자락 곳곳에 케이블을
지방해 주는 첩탈 90여개를 세우야
한다. 계측대로 8인승 케이블가를 운
용할 경우 통상 1km당 10~13개의
첩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공사를 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철탑 주변 5m의 산림은 훼손될 수밖에 없고, 공사를 끝낸 뒤에도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 철탑 1개당 1~1.5m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자리 잡게 된다.

또 굴착기, 레미콘, 크레인 등 대형 공사 차량의 임시 진출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증심사에서 장불재까지 무등산을 관통해 무수한 나무를 자르고, 흙을 파내야 한다.

무등산 전망대도 마찬가지다. 518m에 달하는 전망대의 설치 위치도 문제지만 부지가 정해지더라도 ‘무등산 조

망권'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전남도의 계획은 구체
적인 논의와 검토 끝에 나온 것이 아
니라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급조됐
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도 작다.

◇광주시 반발, 지역 갈등도=광주시는 무등산 국립국립공원 구역에 화

순과 담양 등 전남지역 2개 군이 포함됐다고는 하지만 전남도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계획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시는 특히 무등산이 국립공원 승격으로 대구 등 타 자치단체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치 같은 호반관광의 광주와 전남이 무등산을 놓고 다투는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

시는 일단 전남도의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애초 계획대로 무등

원으로 가꿔나가기로 했다.

시는 2017년까지 올해 확보된 100억원의 사업비를 비롯한 총 972억 원의 투입해 자연사박물관 1곳과 주차장 16개, 탐방지원센터 2곳, 야생장 3곳, 오토캠핑장 2곳, 청소년수련시설 3곳, 휴게소 6곳, 자연학습장 3곳 132개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두등산 정상에 주둔중인 공군부대 이전과 나갈·통신시설의 통합 작업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전남

도의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광주·전남 녹색연합 임형철 공동대표는 “무등산은 천연자원 그 자체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것인데, 여기에 인공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전 국민이 비웃을 것”이라며 “노약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계단이 설치도 현재 무등산 내에 있는 군사시설 도로를 활용돼 친환경 전기자동차 등을 운행하면 해결될 일이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오광록기자kroh@kwangju.co.kr



전남도가 최근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무등산에 전망대와 케이블카 등을 설치하겠다고 나서면서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150만 도시를 품은 산...시민 주도로 가꿔야

국립공원 무등산 5대 과제

③ 관리주체 광주시로

무등산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
게 150만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를 품
고 있는 '도심 속 국립공원'이다. 도심
과 밀접한 덕분에 무등산에는 매년
700만명 안팎의 등산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광주시민들이 무등산을 '어머니
의 산'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무등산은 또 신선 해맞이 등 광주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
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무등산이 지
니는 것은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일부에서 무등산의 국립



공원 승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도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행사 제한 등 각종 제약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특히 국립공원 지정 이후에 관리주체가 광주시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자연보호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지역민과 무등산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이

공단이 관리 땐 시민들과 마찰 우려

와 함께 광주시가 추진중인 천연기념물 제465호 '주상절리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 사업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기에 오는 2014년 개관 예정인 아시아문화전당 등과 함께 지역대표 관광상품으로 개발·연계하는데도 차질이 우려된다.

광주시도 이러한 점을 들어 환경부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건의한 상태이며, 일단 2년간 공동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 직접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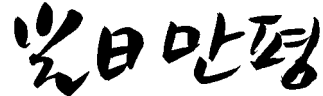
하지만, 국내 국립공원 가운데 도심과 가까운 경우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다, 무등산의 자연환경도 시민 주도로 보호돼 왔다는 점에서 환경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7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전국 24개 국립공원 중 23개소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다만, 한라산 국립공원은 1970년 지정 이후 제주도가, 한려해상국립공원 중 오동도 지구는 여수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국립공원이 도심과 가깝

고, 지역의 관광명소라는 등의 특수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경주국립공원에 지난 1968년부터 2008년까지 공원구역의 상당 부분이 경주 도심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경주시가 직접 관리해왔다. 경주시는 지난 2008년 일선 자치단체의 행정력으로는 국립공원 관리에 한계를 느낀다며 스스로 관리권을 반납할 상태다.

광주의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무등산은 지난 수십 년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보호해 국립공원 승격의 영광까지 이뤄냈다”면서 “광주시와 시민들에게 관리를 맡겨도 충분할 만큼 무등산에 대한 지역민의 의식은 성숙하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 김종두



어차피, 사진발은 틀렸구나

하나투어

www.HanaTour.com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하나투어 광주/전남 전용 상품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세요~!

상담 및 예약 :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모든나라여행사 [전남대정문]	062)521-2100
윤기주하나투어 [신세계 이마트 1층]	062)360-0166
세정투어여행사 [삼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464-8000
남해여행사 [목포 한시랑방원]	061)287-4100
로얄관광여행사 [순천 성동초교 로타리]	061)753-6788

편안한 무안 출발 상품!

중국 속의 유럽, 마카오!

무안출발

마카오 전세기로 보다 편안하게

12월 29일~1월 30일(총10회)
매주 수(2박4일) 토(3박5일)

2월 21일, 24일, 28일(총3회)
목요일(2박4일) / 일요일(3박5일)

● 광주/마카오 → 무안공항 셔틀버스 제공/무안 공항 주차비 무료
● 유정형여객기 1인 10만원 환의(다) 유정형 공항 필수
● 마카오에서 숙박 4일 예약시 1일은 10만원 할인
● 일반 여행의 경우, 숙박 혜택은 불가능합니다.

● 특선 2층 오픈탑버스, 예그타르트
안락시, 포르투갈 식 제공

무안출발

꿈 같은 휴가, 대만!

2월 8일 금요일(3박4일)

[CSP815-MUE]
대만 4일 이류/화면 1,049,000원 ~

● 출발일 : 매주 수/토 ● 인천-게릴(2)안산(1)-게릴-인천
● 특선: 발라사지 호텔, 평양, 과일바구니, 중점, 가족 영상촬영 생생(출발 30일 전까지 신청)

무안출발

3월 1일 금요일(2박3일)

[CSP815-MUE]
대만 3일 이류/화면 999,000원 ~

● 출발일 : 매주 수/토 ● 인천-게릴(2)안산(1)-게릴-인천
● 특선: 발라사지 호텔, 평양, 과일바구니, 중점, 가족 영상촬영 생생(출발 30일 전까지 신청)

중국

[CSP815-MUE]
호도하세호 게릴/양삭 5일 699,000원 ~

● 출발일 : 매주 수/토 ● 인천-게릴(2)안산(1)-게릴-인천
● 특선: 발라사지 호텔, 평양, 과일바구니, 중점, 가족 영상촬영 생생(출발 30일 전까지 신청)

[CSP815-MUE]
보의도시 곤명/구룡포크 6일 899,000원 ~

● 출발일 : 매주 수/토 ● 인천-게릴(2)안산(1)-게릴-인천
● 특선: 발라사지 호텔, 평양, 과일바구니, 중점, 가족 영상촬영 생생(출발 30일 전까지 신청)

동남아

[CSP815-MUE]
베트남/캄보디아
신비와 감동 하롱베이/양코르와트 6일 799,000원 ~

● 출발일 : 매주 수/토 ● 인천-게릴(2)안산(1)-게릴-인천
● 특선: 발라사지 호텔, 평양, 과일바구니, 중점, 가족 영상촬영 생생(출발 30일 전까지 신청)

[CSP815-MUE]
방콕
미소의 나라 방콕/파타야 6일 779,000원 ~

● 출발일 : 매주 수/토 ● 인천-게릴(2)안산(1)-게릴-인천
● 특선: 발라사지 호텔, 평양, 과일바구니, 중점, 가족 영상촬영 생생(출발 30일 전까지 신청)

유럽

[CSP815-MUE]
터키&그리스
자랑스런 사트라프 터키&그리스 6일 1,590,000원 ~

● 출발일 : 매주 수/토 ● 인천-게릴(2)안산(1)-게릴-인천
● 특선: 발라사지 호텔, 평양, 과일바구니, 중점, 가족 영상촬영 생생(출발 30일 전까지 신청)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공항이용료, 전세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된다.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세는 상시상품 가격의 별도지정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인상금액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여행상품의 사진 동의를 받습니다. 선택경비 선택관광경비, 안내원봉사료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번지 ㈜하나투어 ■일반여행업 등록 377호(서울시 종로구청) ■관광발판신고 Tel 1577-1233 ■22억1천만원 보증보험 가입 ■숙소:2급호텔이상 ■교통편:항공/버스/페리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인상금액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